

# 부산 워크이션 거점센터, 獨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혀 9개 부문, 72개국서 1.1만개 출품 인구 감소지역 내 조성, 높은 평가

부산시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부산 워크이션 거점센터'가 인테리어 부문(사무 공간) 본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하노버의 독립적인 디자인 기관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이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상이다.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컨셉트 ▲인테리어 ▲건축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경험(UX)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등 총 9개 부문, 72개국에서 접수된 약 1만 1000개의 출품작이 경쟁을



별였으며,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132명의 심사위원단을 통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부산 워크이션 거점센터는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선정된 부산형 워크이션 활성화 사업의 핵심 업무 공간으로 시원한 전망과 함께 ▲독립된 업무 공간 ▲폰부스 ▲회의실 ▲이벤트 라운지 ▲미니바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차별화된 업무 공간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시가 사업 추진에 앞서 구글, 네이버 등 워크이션 경험 글로벌 대기업에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반영한 결과다.

지난해 2월 개소 이후 시스템 정비를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부산형 워크이션' 사업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1년

도 안 돼 이용객 1200여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이용객 대다수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 소속으로 20~30대 ICT 분야가 가장 많고 부산 지사 설립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어워드를 주관하는 iF 인터내셔널 포럼 디자인 관계자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효율적인 업무 공간 배치로 일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됐다"며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인구 감소지역 내 생활 인구 유치를 위한 거점센터를 조성·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국제 디자인 수상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워크이션 도시 부산의 브랜딩과 전략적인 글로벌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증가하는 워크이션 수요에 대응하고 국내외 핵심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순천시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선정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면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도시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까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0억원을 포함 24억원을 투입해 전문가 컨팅을 거친 후 2027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전남)=전정신 기자

### 창녕군

#### 더본코리아와 농촌경제 살리기

창녕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더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통한 지역 대표 음식 개발과 관광 활성화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촌 지역 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포늪과 우포늪생태체험장, 창녕생태근초원, 우포생태촌유스호텔 등 우포늪 관광 지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음식점 등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군의 역점 사업으로 관내 이방면 일원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 안동시

#### 안동시티투어버스 운행 개시

'안동시티투어버스'가 지난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안동시티투어버스는 문화해설사가 동승해, 수준 높은 해설과 관광지별 인생사진 포인트를 알려주는 등 관광객이 안동 여행을 특별한 여행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동역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버스는 출발·도착 시각을 KTX 운행 시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KTX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이벤트도 준비한다.

투어상품으로는 주·야간 도심테마상품 및 권역별 테마상품이 있다.

/안동(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 울릉군

#### '생활민원 신속처리반' 운영

울릉군이 오는 18일부터 일반주민들을 비롯한 취약계층, 장애인, 70세 이상 노인가구에 생활 불편사항을 신청 받고, 즉시 방문해 현장에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을 운영한다.

군은 지난해 남한권 울릉군수의 의지를 담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3월 자체행정과 민원봉사팀에 생활민원 신속처리반 업무 신설 및 인력 3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생활민원 신속처리반은 소규모 집수리 등의 생활 속 크고 작은 불편을 직접 찾아가 처리하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울릉(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 해남군, 공모사업으로 6912억 확보

(5년간)

3년 연속 1500억 이상 사업 선정 2017년비 6.5배 이상 늘어나 올해도 19건, 655억 확보 '순항'

해남군이 어려운 지방재정의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각급 기관 공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돋보이는 공모사업 추진 성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군은 2021년 1884억원 달성이후 지난해까지 3년연속 150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포함해 최근 5년간 공모사업으로만 603건, 691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43건, 200억원에 불과하던 공모사업은 지난해 127건, 1501억원까지 증가하면서 6.5배 이상 늘어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영암군, '드론 레저 국제경기' 개최

올 10월 영암F1자동차경주장서 열려

영암군(군수 우승희)과 전라남도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주관의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의 '드론 레저 국제경기 개최' 분야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군은 올해 10월 12~13일 '2024 국제 DF-1 드론 레이싱대회'를 영암F1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한다.

드론 레이싱은 초고속 드론을 이용해 공중에서 펼쳐지는 경주로, 장애물을 설치하고 정해진 코스에 따라 드론을 조종해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는 참가자가 승리하는 스포츠로 경주에 참여한 선수는 FPV(First Person View) 고글을 쓰고 드론을 조종하며 존각을 다룬다.



영암F1자동차경주장. /영암군

이 대회는 국제자동차경주연맹(FIA)이 1등급으로 판정한 국내 유일의 영암F1경주장에서 색다른 레이싱을 볼 수 있다는 점, F1경주장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 등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여수시, 탄소중립기술 상용화 거점 도약

국내 유일 실증센터 개소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미래혁신지구에 국내 유일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이하 실증센터)를 개소하고 탄소중립기술 상용화의 거점 도시로 도약한다.

'한국화학연구원 실증센터'는 1차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 제조 테스트베드 구축, 2차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저탄소 고부가 산업공정에 필요한 촉매개발 ▲CCU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제품 제작지원 ▲탄소중립 대응기술개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1차 사업으로 구축된 이번 실증센터는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모사업에 선정,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83억 원이 투입돼 건축면적 2501㎡에 총 2개동 규모로 조성됐다.

석유화학 공정·소재의 실증을 위한 시제품 생산, 시험, 분석 등 23종의 촉매 제조 핵심 장비를 갖추고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증 및 기술지원을 본격 가동한다.

현재 연구원 등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오는 2030년까지 40명까지 인력을 확충할 예정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여수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 기초 유분 제조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나아가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 부산테크노파크, AI 최신 강연 등 열어

'글로벌 AI 부트캠프 인 부산' 개최

부산테크노파크는 오는 8일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에서 '글로벌 AI 부트캠프 인 부산(Global AI Boot Camp in BUSA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AI 부트캠프는 2018년부터 매년 전 세계를 돌며 인공지능(AI) 분야 최신 강연과 워크숍, 실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전문가와 네트워킹을 통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3월 한 달간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세계 70개 이상 도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를 달구고 있는 챗GPT, 달리(DALL-E), 코파일럿(Copilot)과 같은 생성형 인공지

능 기술들과 Github Copilot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사례 등을 소개한다.

또 애저 오픈AI(Azure OpenAI) 등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마이크로소프트 MVP (Most Valuable Professional)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참가 등록은 2024 글로벌 AI 부트캠프 인 부산 참가 등록 전용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2024년 부산 빅데이터 혁신센터의 주요 사업들도 소개한다. BUSAN DATA WEEK 2024, DX부트캠프, DX포럼, 데이터 글로벌 해커톤, 코드포부산, 지산학 연 협력 교과 개설 및 PBL 지원 등 지역 데이터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홍보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